

E D E N CLIPPING

*“My feet may be stuck on earth,
But my mind is a realm of Eden;
The heaven’s wonder.”*

‘Eden’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man-made wonders and the beauty of nature. Opening up your senses to a world of delight and new sensations through a curated retail experience. ‘Eden’ is a celebration of natural elements, merging the lush greenery of the existing site-163 Retail Park with a wondrous landscape referenced from the mythical story of the ‘Garden of Eden’. Providing visitors with a refuge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daily life; as a space of solace and contemplation. Step inside as ‘Eden’ invites you to re-discover how nature can be experienced by magnifying subtle details through its organic structures, transporting you to another world unlike anything you have encountered. An all-white landscape awaits as your senses are treated to the calm & serene environment, akin to being in the grounds of a mythical

temple. A pathway covered with crystal-white pebbles leads you through an arched passageway inspired by Victorian-era steel conservatory structures. It’s light, skeletal structure is a nod to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marvel of the ‘Crystal Palace’; a massive cast-iron structure built to house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in London. In ‘Eden’,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as elements melt and merge together becoming a single growing structure. Here, the garden passageway gives form to hanging ‘vines’ hovering above the arches, imitating stalagmites in a cave. Where vertical and horizontal vines converge to form seating areas as if they were organically grown from ancient tree roots.



'이든'은 인공적 아름다움과 자연의 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잘 연출된 매장 경험을 통해 기쁨의 세계와 새로운 감각에 대한 지각 능력을 깨워준다. '이든'은 자연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163 리테일 파크의 기존 대지가 지닌 풍성한 녹지와 신비로운 '에덴동산' 이야기를 차용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다. 아울러 위로와 사색의 공간으로서 방문객에게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든'은 유기적 구조를 활용하고 강조한 섬세함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새로이 발견하도록 하며, 이제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준다. 오감을 통한 고즈넉한 분위기와 신비의 사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순백의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새하얀 자갈로 덮인 길은 빅토리아 시대의 강철 온실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은 아치형 통로로 이어진다. 뼈대가 드러나 보이는 이 경량 구조물은 1851년 런던에 만국박람회장으로 세워진 거대한 주철 건축물 '수정궁'의 건축적, 공학적 성취에 헌사를 바친다. '이든'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데 여러 요소가 함께 얽히고 어우러져 하나의 성장하는 구조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원길 아치 위에 매달려 있는 '덩굴' 형태는 동굴의 석순을 묘사하고 있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자란 덩굴이 모여 좌석이 되는 곳에서는 마치 이들이 오래된 나무뿌리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www.pamelatan.com